

중국의 섬유 및 의류산업 전망

Textile Intelligence의 보고서에 따르면, 중국의 섬유산업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며, 다른 경쟁국들은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. 또한 비용상승, 수요 및 자본공급의 감소, 기술향상을 위한 기금부족 등의 압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, 중국의 섬유산업은 2012년 국제 무역량 증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.

그리고 2011년 1월~11월까지 중국 섬유산업의 수익과 이윤이 각각 27% 가까이 증가하고, 산업 생산량은 전년대비 11%가 증가하였지만,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의 섬유산업은 서양 소매업체들이 크리스마스 및 휴가철 이후의 수요침체를 우려하여 2012년 S/S 시즌의 오더를 줄임으로써 2011년 하반기 저조한 성장률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.

또한 보고서에 의하면, 인도 의류수출업체들은 루피화의 가치 하락을 대량 오더로 연결할 기회를 놓쳤으며, 심지어 최근 몇 년간 투자와 수출의 성장을 누렸던 방글라데시 산업은 국가의 2011/12 회계연도의 첫 4개월 동안 수출이 감소하였고, 파키스탄 의류수출은 2011/12년 회계연도에 30%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,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

또한 이 보고서는 중국공장에 도입된 섬유기계류의 물량이 2010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, 중국 섬유산업은 여전히 가장 큰 투자처이므로, 향후 투자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.

특히, 중국은 2010년 전세계 셔틀리스직기 출하량의 84%를 도입하였으며, (아시아 전체는 97%) 환편기는 전세계 출하량의 77%(아시아는 92%), 횡편기는 전세계 출하량의 74%(아시아는 94%)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.